노예연봉제·쉬운해고제 저지! 좋은 일자리·사회공공성 확대!

단결 투쟁속보 투쟁

2016년 4월 20일(수)
제5호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909호 / 발행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담당 교육선전실 / 전화 (02) 6277-2187 / 팩스 (02) 6277-2190

공공기관 노예연봉제·강제퇴출제 즉각 중단하라!

연맹 김주영 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노예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우리 연맹은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개악에 맞서 지난 4월 1일 기재부 앞에서 회원조합 노조 간부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9일에는 서울역 광장에 5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대규모 규탄집회를 벌이는 등 현장 조합원의 강력한 결의를 바탕으로 투쟁수위를 높여왔다.

당시에도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국민을 무한경쟁과 상시해고의 위협으로 몰아넣을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즉각 폐지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올바른 공공기관 정책을 수립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4월말까지 공공기관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불이익은 물론 임금인상 동결까지도 예고하는 등 엄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예의 공공기관 줄세우기를 위해 노예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관에는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부당한 정부정책의 폐기와 노정직접교섭 요구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고, 아직도 무소불위 경영평가를 앞세워 기관 종사자를 좌지우지 하고, 국가 정책을 반강제적으로 공공기관에 도입시키려는 의도가 더욱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도입 철폐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현장에서 투쟁중인 조합원들에게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흔들림없이 투쟁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1차 도입시한인 4월말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1인 시위는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권재석 연맹 수석부위원장(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과 연맹 소속 회원조합 대표자들도 차례로 결합할 예정이다.

호 소 문

공공노동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킵시다!

두 번이나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패배라고도 하였지만 공공부문 노동자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행위로 떠넘겨진 수백조원의 부채에 대한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도 방만경영과 과다복지의 프레임에 갇히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도 없는 노예연봉제로 임금을 삭감하고, 그것도 모자라 쉬운 해고로 우리의 목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쉬운해고를 강압하기 위해 공공노동자부터 앞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치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시행 중이거나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를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사측을 강압하여 온갖 불법적 방법으로 강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도입시에는 추가 인센티브와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도입 거부시에는 임금인상을 동결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조차 무시하고 불법을 강요하다니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지난 4월 9일, 우리 연맹 5천여 동지들은 서울역에 모여 정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성과는 서로 경쟁하고 짓밟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 나타나며, 협업만이 더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임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성과연봉제를 먼저 시행했던 여러 나라의 실패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공부문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그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돈의 노예로 치부하며 알량한 인센티브를 미끼로 노예연봉제와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두 번의 물러섬은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예연봉제와 쉬운 해고는 대다수 노동자인 국민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일상화하겠다는 노동개악의 전초전이기에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단지 돈 몇 푼에 우리의 자존심,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팔아넘기지 맙시다. 이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투쟁, 대다수 국민의 투쟁이기에 우리의 결의를 높여야 합니다.
4월이 분수령입니다. 모든 현장이 많이 어렵고, 일부 흔들리는 조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투쟁은 비록 승리의 전망을 가늠할 수 없을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함께 투쟁합시다. 그 앞에 저를 비롯한 우리 공공노련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그리고 승리의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어깨 걸고, 당당한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자존심을 높이 세웁시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주 영